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9년 표어§

"거룩한 교회 · 민족의 구원선 되게 하소서"
(히 13:12-16, 합 3:2)

十 행동 지침十

- 1. 교회의 거룩성 회복하여 민족의 희망
- 2. 믿음의 대를 잇는 예배공동체, 선교공동체
- 3. 하나님 역사 속의 행동하는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국가 재건을 위하여 (I)

(느헤미야 7:73~8:18)

이종윤 원로목사

예루살렘 성을 완성시킨 느헤미야의 과업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국가 재건을 서둘렀다. 성 수축은 국가 재건의 일차 단계에 불과했다.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거의 4세기 동안의 국가 개혁 운동의 기초를 놓았다. 7장 초반부에서는 보호받는 도성에서 살 수 있는 거민들을 위로하며 국가의 영적 갱신을 준비한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율법을 읽고 회개와 갱신이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다(8-10장).

I. 국가적 갱신 운동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공회에서 읽었다(2 - 12절).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백성이 모여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에스라는 별도로 세운 강단 위에 서서 명망 있는 13명의 레위인들을 배석시키고 율법책을 아침부터 정오까지 읽었다(약 6시간 동안). 에스라가 성경을 펼 때 그들은 경건한 자세로 일어났다. 백성들은 그가 기도할 때 아멘 아멘으로 응답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국민적 갱신과 부흥을 일으키게 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때다.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백성들이 기근과 기갈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되지 못하고 느헤미야 때 유대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는 오늘이 아닌가? 오늘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멀리 있나? 말씀운동이 곧 교회갱신운동이요 그것만이 민족이 사는 길이다.

II. 부흥하는 단계들

1. 에스라는 기도로 시작했다(6절)

이 기도는 율법을 읽기 전에 한 것으로 책을 펴고 설교 전에 하는 기도를 말한다.

그가 기도로 찾은 것은 두 가지이다.

① 율법을 읽는 것은 단순히 시민적 행사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다. 이 율법은 모세 5경을 말한다(1절). 율법은 백성 중에서 그 권위를 이미 인정 받고 있었다.

② 하나님의 권위를 찾았다. 이것은 인간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에스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서 무엇을 하시시기를 백성들이 알게 해 주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그것을 받는 것이다.

2.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3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섯 시간 동안이나 읽었다. 장로교의 요람지인 스코틀랜드 교회는 예배 시간에 beadle이라 칭하는 이가 성경을 들고 입장하여 강단 위에 놓고 그 날 읽을 성경을 펴놓는다. 그 후 그는

강단에 목사를 안내한다.

이때 모든 교인은 기립한다. 목사가 자리에 가서 앉을 때 함께 앉는다.

비평가들은 bibliolatri 즉 책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나 그렇지 않다. 이것은 성경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하는 일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그 말씀을 예배하는 자들이 듣겠다는 존경의 표시다.

3.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다(7~ 8절)

율법을 깨닫도록 해석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백성에게 깨닫게 했다. 레위인의 직분은 말씀을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번역하고 해석하여 깨닫게 설명하는 것이었다(8절).

강해설교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배에서 의식은 또한 중요하다. 주제설교는 감동적이고 효과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설교하려면 말씀을 강해해야 한다. 설교의 주목적이 반드시 교회 부흥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바로 번역하고 깨닫도록 설명하면 갱신과 개혁운동이 일어난다.

“종교개혁의 전령사는 갱신된 설교(renewed preaching)였다. 이것은 설교에 대한 새로운 관심일 뿐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설교다” D. Martyn Lloyd-Jones, Preaching & Preachers(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Publi. House. 1972), p.24

4. 죄를 슬퍼했다(9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백성들은 울었다.

5. 이제는 알아야 할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큰 기쁨의 축제를 해야 한다(12절)

그들은 물론 다시 죄를 짓고 갱신이 요청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갱신이 필요하다.

결론

1. 그들은 하나님 책의 사람들이 되었다

그들은 다시 에스라 집에 모였다(13절).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날마다 말씀을 낭독하고 절기를 지키고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18절).

2.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주신 성일을 지키기 시작했다(10절)

3. 장막절은 가을추수절(감사절)로 이것은 광야에서 유리하던 때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다

그 달 15일에 시작하여 7일간 축제가 이어지며 그것을 준비키 위해 2주간이 필요했다.

4. 속죄의 날을 보아야 했다

그것은 죄를 슬퍼하는 날로 그 달 10일에 있었다. 그 날을 기뻐하라고 했다(10절).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행복한 하나님을 모신 성도는 행복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못한다.



서울강남노회는 박노철 목사를 언제까지 비호할 것인가!

1. 서울강남노회의 일탈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7일, 서울강남노회 임원회는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과 관련한 일방적 주장을 행정결의가 아닌에도 노회원들의 개별 승인도 없이 일간지에 무단 발표하였습니다.

또 1월 9일에는 박노철 목사가 원하는 대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대리당회장을 파송하고, 그로 인해 적법한 예배권을 주장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을 폭력으로 막아서게 하여 교회가 난장판이 되게 만들고도 1월 21일 외유성이 의심되는 해외 임원수련회를 떠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미 서울강남노회 소속 최모, 김모 목사 등은 제102회기 총회 석상에서의 허위발언으로 총회를 농단한 바 있고, 서울교회 사건에 서울강남노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회피하였던 조모 재판국원은 슬며시 판결합의에 개입하여 재재심까지 유발시켰으며, 103회기 총회 공천위원장 목사는 총회공천원칙도 무시한 채 서울강남노회 소속 강모 목사를 공천하여 결국 재판국장까지 되게 하고, 오랫동안 박노철 목사와 서울강남노회 관련 사건들의 변호인을 맡고 있던 흥모 장로까지 재판국원으로 집어넣는 등 총회재판국까지 농단하려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교회 성도들에 의해 직무유기로 고소된 강모 목사 등의 기소를 막기 위해 작년 가을 정기노회 이후 해를 넘긴 지금까지도 상설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노회 기소위원회와 재판국 구성을 하지 않고 있어 정당한 직무조차 유기하고 있는 등 공격 치리회로서의 사명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습니다.

2. 서울교회 안식년제규정의 제정 취지와 시행 과정 그리고 분쟁 발생 경위

서울교회는 교회 지도자 위치에 있는 목사와 장로들로 인하여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2000년 공동의회를 거쳐 만장일치로 목사와 장로들 모두가 일정기간 시무 후 성도들의 재시무투표를 받게 하는 규정을 통과시킨 후 16년간 원로 목사는 물론 모든 장로들도 예외 없이 이를 지켜왔습니다.

박노철 목사도 담임목회 5년간 장로들의 안식년 시행과 당회에서의 재시무투표를 직접 주재하였고, 그 스스로 안식년제 규정은 성경의 명령이고 서울교회의 자부심이라고 선포한 바 있으며 자신도 시무 6년이 지나는 2017년 10월 재시무투표를 받게 되고 약속한 것이 당회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노철 목사는 부임 초 상당수 성도들의 반대에도 6년 시무 후 재시무투표의 기회가 있으니 기도하고 협력하되 그래도 부족하면 그때 다시 의사표시를 하자는 오정수 장로 등 선임 장로들의 설득으로 순조롭게 청빙투표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의 재시무투표 시기가 도래하자 갑자기 동조 세력을 모아 안식년제와 재시무투표가

“
서울교회는 위 재시무투표 규정을 사전에 목사, 장로는 물론 모든 성도들이 합의하여 지교회의 정식규정으로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가능한 것이며 다른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규정

”
총회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거부하므로 교회 분쟁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3. 안식년제 규정에 대한 법원판결의 의미

법원은, 재시무투표제도가 포함된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이 지교회인 서울교회가 자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지교회의 독립성 및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관한 것으로 총회 헌법에 구속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는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위 안식년제규정에 따른 재시무투표를 받지 않은 박노철 목사는 더 이상 서울교회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는 1, 2심 판결을 했습니다.

또 안식년제도와 관련 총회 헌법위원회는 물론 총회도 안식년제가 유효하므로 그대로 시행하라는 행정공문을 발송하였고, 법원의 1, 2심 본안판결 이후 2019년 1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도 또다시 그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박노철 목사의 직무집행을 즉각 정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으며, 이 가처분결정은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것과 동일한 즉시 집행력을 발생하는 것이어서 바로 그 다음 주일부터 설교강단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울강남노회는 안식년제 규정과 관련하여 같은 서울고등법원이 전혀 다른 두 가지 결론을 냈다고 하였으나, 이전에 박노철 목사가 승소한 판결은 서면심리만을 기초로 한 단순한 가처분 사건의 판단인데 비하여, 이후 박노철 목사가 패소한 판결은 박노철 목사가 승소한 위 가처분 결정까지 다 검토하여 실체적 심리를 마친 후 내려진 정식 본안판결이었음에도 마치 이를 동일 수준의 판결인 것처럼 교묘히 그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법원의 판결로 교단소속 다른 목사님들의 지위에 어떤 영향이라도 줄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며 교단헌법수호 운운까지 하며 그 부당성을 호도하고 있으나, 서울교회는 위 재시무투표 규정을 사전에 목사, 장로는 물론 모든 성도들이 합의하여 지교회의 정식규정으로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가능한 것이며 다른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규정입니다.

서울강남노회가 그간 총회헌법 무시에 앞장섰고, 제102회기 총회재판국 역시 이를 옹호하는 재심판결을 한 것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국가법원이 나서서 "자기들 교단헌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노회와 총회에 자신들이 만든 교단헌법이라도 바로 준수하라"는 일침을 가한 것을 두고 정교분리 위배 등으로 원색적으로 비난하였지만 이런 비난이야말로 오히려 서울강남노회가 국가법원의 판결에까지 여론몰이로 부당하게 간섭하며 스스로 정교분리의 원칙을 깨뜨리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원문제를 기득권 유지 위한 압박 수단화

박노철 목사는 안식년 휴무가 개시된 2017년 1월 20일 교회예금재산보호를 핑계로 직접 은행에 가서 통장을 분실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통장을 재발급 받고, 경리직원만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까지 변경함으로써 이후 총유재산인 서울교회 예금은 사실상 박노철 목사만이 독단적으로 관리, 처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9월 제101회기 총회재판국에서 박노철 목사의 담임목사 지위부존재 판결이 선고되어 이를 근거로 서울교회 고유번호증 상 대표자를 대리당회장 명의로 회복시켜 해외선교사들과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원금 등 긴급한 지출을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박노철 목사가 곧바로 2017년 10월 관할세무서를 찾아가 이미 효력이 상실된 전 101회기 총회장 이성희 목사 명의로 발행된 대표자증명서, 재직증명서, 소속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고유번호증 상 대표자를 다시 자기 명의로 변경하여 이후 사실상 서울교회의 재정운영 및 예산집행은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이 지난 2019년 1월 4일 법원의 담임목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으로 은행거래에 필요한 교회대표자 정정을 통해 은행거래를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곧바로 전혀 법적 근거도 없는 서울강남노회의 대리당회장 파송으로 안타깝게도 또다시 은행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원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또 서울강남노회는 같은 노회 소속 최모, 김모 목사의 제102회기 총회석상에서의 서울교회 관련 허위 발언으로 제101회기 재판국원이 전원교체되자, 당시 행정재판국장이었던 강원동노회 소속 모 장로가 중심이 되어 위 목사들을 상대로 권징고소를 하고 기소까지 되자, 서울강남노회는 그때부터 그동안 서울강남노회를 통하여 지원하던 위 행정재판국장 소속 강원동노회 산하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시키면서 위 최모, 김모 목사에 대한 권징고소 취하를 압박하였습니다.

5. 서울강남노회의 대리당회장 파송의 적법성 여부

서울강남노회는 지난 1월 4일 법원의 박노철 목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자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이태종 목사를 1월 9일 대리당회장으로 파송하여 현재 서울교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또 다른 법률적 다툼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현 상태를 당회장 결원이 아닌, 유고로 보더라도 직무정지가 된 당회장은 당연히 다른 목사에게 위임하여 대리당회장으로 세울 위치에 있지 못하고, 또 헌법에 "당회장 유고 시에는 당회장 결원이 아니므로 노회가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강남노회는 직무정지된 박노철 목사의 위임을 핑계로 법적 근거도 없는 대리당회장을 파송하여 스스로 대리당회장 논쟁에 개입한 것입니다.

이러한 서울강남노회의 대리당회장 파송은 박노철 목사에 대한 법원의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이 난 직후 서울교회 당회원들의 정당한 법절차를 방해하고 혼돈시키기 위하여 갑작스럽게 등장한 짜맞추기 절차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서울교회 당회 장로 중 2/3에 달하는 다

수 장로들은 제101회기 총회장께 서울교회 분쟁의 최초 발단이 된 박노철 목사의 불성실, 신실하지 못한 태도, 복사 수준의 설교 표절, 직원들에 대한 갑질 행태 및 소수 지지 장로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당회파행운영과 불법적인 15인 장로선출 등에 관한 실상을 알리며 지교회 전통으로 확립된 자치규범과 총회의 여러 헌법해석, 심지어 총회장의 행정지시까지 노골적으로 폄하하고 거부하는 박노철 목사와 이를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서울강남노회에 대하여 최고 치리회로서 헌법절차에 따른 강력하고도 단호한 조치를 호소한 바 있고, 제102회기 총회장께도 박노철 목사가 불법 동원한 용역들을 즉각 철수할 수 있도록 간곡히 탄원한 바 있으나, 총회의 무성의한 방기와 서울강남노회의 노골적 편파 행정, 그리고 박노철 목사 지지자들과 불법용역들에 의하여 1년 가까이 성도들의 출입이 제한된 채 갈등과 대립이 그 끝을 알 수 없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나아가 자신에 대한 설교표절 시비를 피하기 위해 전임 원로 목사도 표절했다는 등 패륜적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고, 또 4차례에 걸쳐 '혐의 없음'으로 판명된 특정장로의 재정보리 등 거짓으로 성도들을 선동하여 교회를 찢고 분열시킨 수천여 명의 성

도들을 분쟁 가운데로 몰아넣은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서울교회는 1년에 걸친 박노철 목사의 용역 동원으로 8층 규모의 교회건물은 외부로부터 차단시키기 위한 각종 구조물과 용역들의 담배 냄새가 썩 드는 소굴이 되었으며, 천여 명 이상의 성도들은 단순히 목사에 반대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용역들에게 밀려 쫓겨나와 매주일 1층 단 한 개 층의 비좁은 공간에서 주일 1,2,3부 예배와 찬양예배, 교회학교 각 부서별 예배와 찬양대 연습은 물론 교회건물 내 식당도 사용하지 못하여 매주일 여성도들이 손수 준비하여 가져와 예배 후 1층 빈 공간여기저기 흩어져 식사 하는 등 매우 열악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총회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타락한 목회자와 이를 비호하는 서울강남노회의 편향적 치리권 남용에 대해 최고 치리회로서 엄히 훈계하시고 권징하셔서 거짓과 술수로 성도와 세상을 기만하는 자들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간곡히 소원합니다.

2019년 2월 21일
서울교회 장로 임상현 외 12명 당회원 일동

기독교 청년의 외침!

안승민 집사(청년부)

지난 주 순례자에 실린 강남노회가 서울교회 안식년제에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기사를 읽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적어도 목사라면, 그들 스스로가 개혁교회의 정통성을 주장한다면 교회가 온갖 내우외환의 몸살로 시름시름 앓고 점점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항존직의 오역을 바로 잡고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제대로 되돌아 볼 기회를 갖게 하자는 안식년제를 반대하는 것 자체가 반개혁적 행태다.

개혁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교회를 개혁 하려는 이 작은 몸부림조차 그들 기득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인식한다면 개혁교회의 정통성과 의미는 단지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개혁교회란 언제나 자신들만은 제외인 이율배반적인 위선자인가!

성도들에게 교만함과 탐심을 내려놓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오히려 자신

의 지위만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가두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판에도 끄덕없이 행동하는 그들이야말로 시장에서 문안 받기 좋아하고 남들에게 잘 보이려 애쓰는 바리새인의 모습 아닌가!

그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큰 위기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과렴치하고 뻔뻔스런 행동이다.

교회는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고, 청년들은 떠나가서 고령화 된 지 오래이며, 세상에서 힘을 잃어 전도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것은 그동안 교회가 세상 권력에 취해 비틀거렸고 변영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동안 비대해진 몸을 가늘 균형각각을 여지없이 상실하여 교만이 몸(교회)자체를 일으킬 만한 여력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런 위기인식을 가장 먼저 느껴야 할 그들이 이런 식으로 교회개혁에 뒷걸음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안식년제를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그 두려움이 얼마나 그들이 걸어온 삶이 떼뻗할 수 없었는가를 그들의 성명서를 통해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자신들이 정말 교회의 위기인식을 공유하고 개혁을 통해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고 공감하는 사람들이라면 성명서 발표같은 뻔뻔한 짓은 하지 말아야 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 수치를 폭로하는 행위다.

교회가 난장판이 되든, 불법이 용인되든 말든, 목사의 어지러운 행동들이 성도들에게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든 말든 내 교회 목사 지위만큼은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것은 그들이 사실은 개혁엔 관심이 없고 그저 또 다른 밤그릇 지키기에 여념없는 샅꾼에 불과하다.

교회 개혁은 바로 이런 샅꾼들을 걸러내어 음지에서 빛도 없이 오직 예수님만 소망하며 낮은 자를 섬기기에 헌신하는 진정한 목사님들을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일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교회가 다시 세상 사람들의 소망을 되찾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 일의 첫번째는 교회가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 그 전제 아래 안식년제를 통한 목사 임기제를 한국 교회 전체에 확산시키는 일일 것이다. 물론 그 도화선은 우리 서울교회가 당길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